

- 주요 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추가 작업 등을 이유로 협상 일시 중단 다음 날 재개 예정
 - 미국 뉴욕 연은 조사, 2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비 상승
 - EU,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에 새로운 제재 부과를 고려. 에너지 수입은 지속
 - 중국,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선전시 전면 봉쇄. 공급망 차질 심화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 전망과 우크라이나 전쟁 불안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 주가 하락[-0.7%],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1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상 예상, 중국 코로나 19 재확산 등이 주요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기대 등으로 1.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3월 FOMC를 앞두고 하락했으나 여전히 21개월래 최고 수준
유로화가는 0.3% 상승, 엔화는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2019년 7월 이후 최고치
독일은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등으로 1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42.6원, -0.4원) 포함, 한국 CDS 상승

		3/14일	3/11일	전일대비			3/14일	3/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73.1	4,204.3	-0.74%	국채 금리 10y	미국	2.13%	1.99%	14bp
	유럽	436.35	431.17	1.20%		독일	0.37%	0.25%	12bp
	중국	3,223.5	3,309.7	-2.60%	CDS 5y	한국	32bp	31bp	2bp
	일본	25,308	25,163	0.58%		중국	67bp	58bp	9bp
	한국	2,645.7	2,661.3	-0.59%	위험 지표	EMBI+	-	596	-
환율	달러지수	99.06	99.12	-0.07%		VIX	31.77	30.75	3.32%
	유로화	1.0940	1.0912	0.26%		WTI유	103.01	109.33	-5.78%
	엔화	118.19	117.29	-0.76%	원자재	구리	451.3	461.6	-2.24%
	위안화	6.3657	6.3393	-0.41%		금	1,950.9	1,988.5	-1.89%
	원화	1,242.3	1,232.0	-0.8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추가 작업 등을 이유로 협상 일시 중단. 다음 날 재개 예정

- 양국은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3/15일 재개하기로 합의.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세부 작업과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
- 미국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이와 관련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군사 행동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반박
- 미국 아데예모 재무차관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전면적인 무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 독일 린트너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Interfax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르면 3/15일부터 밀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 양국 간 협상 중에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역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점차 증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조사, 2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비 상승

-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6.0%로 전월(5.8%) 대비 올랐고, 3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도 상승(3.5%→3.8%). 다만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작년 11월 수준을 상회했으나, 3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작년 11월 수준을 하회

■ JP모건, 연기금의 자산배분 효과 등으로 글로벌 주가는 10% 상승할 가능성

- Nikolaos Panigirtzoglou 스트래티지스트에 따르면, 주요 연기금은 최근 가격 하락이 나타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 이에 주식시장에 2300억달러의 투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ECB, 역내 은행은 보다 광범위한 기후 변화 리스크를 공개할 필요

- 대형은행들은 여전히 ECB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해당 리스크를 공개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

■ EU,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에 새로운 제재 부과를 고려. 에너지 수입은 지속

-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3개 에너지기업(Rosneft, Transneft, Gazprom)에 대해 투자금지, 신규 자금조달 제한 등의 제재가 예상. 다만 역내 다수의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미국과 같은 금수조치 시행은 어려울 전망
- 일부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가 시행되면, 이는 독일의 GDP가 3.0%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

■ 중국,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선전시 전면 봉쇄. 공급망 차질 심화 가능성

- 선전시에는 애플 공급업체 폭스콘 등 다수의 전자 부품업체들이 위치하여,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 Nomura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제시한 금년 성장률 5.5% 달성은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고 평가

■ 중국사회과학원, 인민은행은 경제안정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설 전망

- 여영정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2%까지 상승해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 있는 반면, 중국은 금리를 인하해도 실질금리는 계속해서 플러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
- 국무원은 안정적인 경제활동 여건의 조성을 확신. 또한 강도 높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 고용증가, 적절한 수준의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

■ 국제에너지기구(IEA), 원유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산유국에 증산을 요구

- 비롤 사무총장은 62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여건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방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또한 모든 산유국들은 책임감을 갖고 시장에 원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3/14 현지시각 기준)

- 중국 2월 해외직접투자(전년동월비): 5.5%, 1월(5.1%), 예상치(5.5%)

■ 주요 경제 이벤트(3/15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미국 2월 생산자물가, 3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 독일 1월 ZEW 경기기대지수, 중국 2월 소매매출,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러시아 경제제재 여파,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 Financial Times**
(Fall of Lehman shows how unpredictable impact of Russian sanctions could be)
 -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미국 정부의 단호한 결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 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발한 러시아 푸틴 정부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지만,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필요
 -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제재에 대응하여 더 큰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 이는 유가 외에 농산물과 비철금속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연결되어 전세계에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킬 소지. 각국은 이로 인한 국제금융과 경제적 취약성에 대비가 요구
-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축,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초래할 우려 - WSI**
(The high cost of Europe's energy security)
 -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축분을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수입확대로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여전히 LNG 형태의 대규모 추가 공급이 필요. 그러나 유럽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독일은 LNG 터미널이 전무하여 운송이 어려운 상황
 - 또한 유럽은 미국의 도움으로 LNG를 현물시장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매입은 가격상승으로 불가능. 이에 재고확보를 위해 중국과 입찰경쟁에 나서야 할 전망. 비용절감을 위한 미국 등과의 장기공급 계약은 '24년 이후에나 가능
 - 다만 에너지 비용증가로 경제성이 취약한 프로젝트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 상존. 또한 과거 원유 관련 지출 규모가 GDP의 4%를 초과할 때 수요감소가 발생했는데, 최근 해당 비율이 4.5%로 향후 수요감소가 나타날 소지
- **미국 경제, 주택시장 과열과 에너지 충격 등으로 빈부격차 심화 우려 - 블룸버그**
(Inflation is bringing back the K-shaped economy)
- **니켈 가격 급등, 보다 광범위한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의 신호일 가능성 - WSI**
(Will Financial Stability Get Nickel-and-Dimed?)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